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느헤미야 1:1-11, 고린도전서 3:16-17

정윤돈 목사님

요약

서론 : 느헤미야의 주제 - 그리스천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1.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2.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3. 성벽 재건 이후,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느헤미야의 사역

결론 : 그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오늘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일꾼을 선택하셔서,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고,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민족이 새롭게 재건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스룹바벨, 여호수아 같은 일꾼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외형만 갖췄졌을 뿐, 아직도 체질은 불신자의 상태와 같습니다. 나쁜 습관이 없어지지 않았고, 규모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제하는 것, 지키는 것이 필요하합니다. 그것이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도 성벽도 다 준비되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서,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인도입니다. 시켜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위대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 일을 진행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각자 스스로 내가 할 일과,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한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깃발을 든다면, 모든 백성, 교회,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서론 : 그리스도인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느헤미야 하면 리더십에 대한 교훈,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봤더니, 너무나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즉 인사관리, 조직관리 같은 부분을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리더십 강사의 강연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리스천입니다. 이분의 말이, 지금까지의 경영학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영은 사람을 쥐어 짜고 효율을 얻어내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것과 비(非)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쓰다가 가치를 다하면 버려 버릴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버리고 파묻어 버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인간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물건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인간을 소중하게 살리는 경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이며 진정한 경영인입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 리더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멘트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작은 회사를, 어떤 분은 큰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것은 그릇의 차이입니다. 무엇이든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은 큰 조직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다른 한 사람과 같이 일하기도 힘들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세상적인 리더십은, 돈 벌고 큰 회사 차리고 국회의원 대동령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영원히 남는 복음운동을 위한 리더로 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천명-소명-사명을 누리는 리더십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조직과 모든 분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세우며, 후대에게 믿음과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리더는 보통 야망사람을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상향식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뒷사람까지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의 나라 페르시아의 왕인 아다스사다 왕을 움직여서, 그 속국에 불과한 자기 나라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뒷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뒷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상관을 끼는 재미로 다닌다고 합니다. (웃음) 상관을 계속 욕하면 거기에서 승진이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다 전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직장의 MT를 가서 상관을 계속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친구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그분이 그랬던 것은 어려서러한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관이 그 부하직원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가 그 부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데, 그 부분을 비난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 상사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계명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신앙적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견고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많은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1. 느헤미야의 눈물과 응답

(1) 느헤미야 1장 :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느1:1-2). 느헤미야는 900km 떨어진 예루살렘 땅의 소식을 항상 궁금해 했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한국 민족의 일,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상태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목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간지도자가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다는 것입니다(느1:3).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1:4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린 장면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타국에 있으면서 모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단순히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사랑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 멸망 이후 15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1세대가 아니라 4세대, 5세대 쯤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이 선교 중에 만난 고려인들은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이미 영혼은 러시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타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고국을 잊지 않았고,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 언약을 잘 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 5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나라, 민족, 신앙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었을 뿐 아니라, 말씀이 회복되었고, 십일조와 절기가 회복되었으며, 찬양하는 모든 전문인들까지 다 회복되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우리 후대들이 이 일에 동참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되어, 세계를 정복하는 모델이 되고 방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화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할 정도로 성경을 읽으며, 지금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두고 성경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성공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며, 적용할 점을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끊임없이 재창조의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성벽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고 방법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유대인을 능가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 느헤미야 2장 :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아다스사다 왕의 술 말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이 술 말은 관원장을 누구에게 시키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왕이 믿는 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사실 아다스사다 왕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맡긴 것입니다. 회사에서 수표, 어음,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황령할 사람에게서 못 맡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기만 해도 쓰임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정도 믿었습니까? 왕이, 적국이 될 수도 있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성벽을 든든히 세우면, 그것을 믿고 그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은 느헤미야를 완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뭘 하든지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면,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지. 걱정할 것 없다.' 느헤미야를 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왕이 느헤미야에게서 평소애 거저된 것을 느꼈다면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리더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저 없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정직한 것, 거짓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입니다.

2.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

(1) 3장 : 성벽 재건 방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3장을 보면, 성벽을 지을 때 양문(羊門)을 가장 먼저 건축합니다(느3:1). 양의 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요10: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제일 먼저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피를 부렸고, 어떤 사람은 성실히 했는데, 느헤미야 3장에는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코야 사람들을 보면, 열반 서민들은 건축에 나왔지만 귀족들은 뒤로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서 뒤로 빠지지 말고 제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원가를 시켰는데 제일 앞에서 한다면 마음에 남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 가면 꼭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빠지는데 내가 앞장선다면, 나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앞서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입니다. 3장을 꼭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지시를 따라서 일했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느3:8, 31-32에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도 성벽을 중수했다고 합니다. 금장색은 금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향품 장사는 고급 향수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은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두고 성벽 재건에 나선 것입니다. 느3:9, 12, 14, 15, 16에는, 대단한 지도자들도 함께 이 성벽 중수 사역에 참여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 또는 반학계, 미스마, 뱀술 지방을 다스리는 대단한 귀족인데 자기 아들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는 우리 아들딸들은 빼 놓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인 것 같습니다. 3:10, 23에서는,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어려운 작업을 두고, 가능하면 쉽게 할 수 있도록, 짐과 마추한 부분을 맡겨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이미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할 자리들을 다 둘러보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실제 중수하게 될 때, 백성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주고 나누어서 속히 건축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힘든 골짜기 구간의 건축을 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한테는 왜 힘든 골짜기를 맡기느냐' 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힘든 골짜기 구간은 내가 맡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맡아 나서시겠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곳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여 일을 맡긴 것입니다.

(2) 4장 : 반대자의 방해물 이겨내는 방법

느헤미야 4장에서부터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지역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리 흉흉한 리더라도 반대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그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믿음과 정신력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대적 사단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까(벧전5:8)? 그래서 지지 말고 승리하여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4:1을 보면, 이 방해자가 산발랏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백성들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필요도 없이 분을 내며, 한편으로는 또 비웃습니다. 비웃는 사람, 폄하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해서 중요한 일을 그만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꼴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화를 막 내다가 웃고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4:3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것을 거들어서 성벽 재건 지역을 비웃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4:11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사마리아와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모여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곧 가서 습격하여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들은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창과 활을 들고 서 있게 했고, 백성들과 귀족들을 모아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며, 너희 가족과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하여 건축하는 이들을 보호하게 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고, 나팔 부는 자들을 준비하여 습격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 무장한 백성들을 모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방비하면서 성실히 작업을 한 결과, 불과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3) 5장 :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런데 성벽 건축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는데 먹을 것도 없이 어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 빚을 내다 보니까, 이것을 갚지 못하여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5:1-5).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며 귀족들과 부자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비싼 이자를 취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노예 되어 있다가 겨우 풀려났건만, 어찌하여 동족끼리 서로 종으로 팔리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꾸어준 것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받은 것도 돌려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이것은 리더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위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원망의 소리에도 함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4) 6장 : 원수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6장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네 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만나자' 하고 느헤미야를 불렀지만, 실상은 느헤미야가 오면 매복했다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네 번이나 불렀는데도 느헤미야가 오지 않으니, 급기야 원수들은 다섯 번째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화도 나고 조급해서 그 함정의 자리에 나아가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속이는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분별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수용할 것, 포용할 것, 해결할 것, 끊어버릴 것,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성벽 재건 이후, 느헤미야가 세워 나가는 시스템

(1) 7장 : 백성의 숫자를 조사함

이런 모든 음모와 어려움을 이기고 성벽의 건축을 마친 후에, 이제는 느헤미야가 백성의 숫자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체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작은 것

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인구 조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조사하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금 이런 출석체크를 잘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성장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시스템화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의 모델이 될 것을 믿습니다.

(2) 8장~9장 :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함

8:1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게 하였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다 지었더니, 짓고 난 후에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백성들이,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반성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9:3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 사분의 일 시간 동안 서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또 낮 사분의 일 동안에는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세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세 시간 동안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멍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되새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한 날을 그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3) 10장~13장 : 예루살렘에 머물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기록함
이어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고 인봉합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제비뽑아 세우고,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자들은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의 타겟이 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다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24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를 ping하듯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음악을 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궁에 다녀오는 동안 또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후에 이것을 꾸짖고 타락했던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하고, 지속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 : 크리스천 리더십

결론적으로,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해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서점에 가면 리더십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리더십과 성공 방법에 대한 많은 강연도 있으며, 이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기업을 성공시키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책을 써서 성공하고 돈을 번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리더십,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철학과 크리스천의 리더십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나라에 장로님 대통령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고위직에 올라갔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양육한 교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고(故) 하용주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는 화장실 청소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외부에서 온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있었던 어떤 장로님들은 그런 것을 못 견디고 교회를 나가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와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수구 청소를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환경부 차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개혁을 해야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많은 믿음의 리더가 나올 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후대들이 그런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1)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는 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2) 교회를 건축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대기업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삶의 규모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세계까지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서밋(summit)이요 홀리메이슨(Holy Mason)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밀결사대를 움직인 리더였습니다. 모든 청소년들과 대학장년들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램프트 선교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왜 그 직장에 잡니까?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고 그 분야를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자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갖추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마른 풀처럼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남을 영적인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에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소중한 리더십을 갖추고, 진정한 리더가 됨으로써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